

# 광주 지하철 2호선 ‘푸른길 공원’ 땅밀 통과 논란

## 백운광장~조선대 1.8km 구간 훼손 우려

### 환경단체 “계획 변경”… 광주시 “훼손 최소화”

광주 도시철도 2호선(지하철 2호선) 노선 중 일부가 폐선부지를 활용해 만든 ‘푸른길 공원’의 땅밀을 통과하는 것을 놓고 논란이다.

지역 환경단체들은 지하철 2호선 공사로 푸른길의 훼손이 우려되는 만큼 노선 변경을 요구하고 있는 반면 광주시는 도로 구조상 불가피한 노선이라며 훼손을 최소화해 공사를 진행하겠다고 입장이다.

(사)푸른길과 광주환경운동연합은 27일 성명을 내고 “도시 숲길인 ‘푸른길’을 훼손하는 지하철 2호선 계획을 변경하라”고 밝혔다.

(사)푸른길이 최근 광주 도시철도건설본

부와 가진 간담회를 통해 파악한 지하철 2호선의 기본설계에 따르면 백운광장에서 조선대까지 2.3km의 ‘푸른길’ 중 77%에 해당하는 1.77km가 훼손된다는 주장이다.

지하철 2호선은 지하 4~9m를 파서 전동차를 운행하는 저심도 방식으로 설계되는데, 공사과정에서 일부 푸른길이 파헤쳐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푸른길에는 지하철 2호선으로 연결되는 4개의 승강장과 승강장 출입로가 설치될 계획이다.

조선대학교 정문에서 백운광장까지 푸른길공원 2.3km 구간은 도심철도 폐선부지로 10년 전 시민에 의해 ‘푸른길’로 바뀐 구간으로, 광주를 대표하는 도시 숲길이다.

환경단체들은 “이 구간은 30년 된 느티나무와 수천 그루의 나무들이 어울려 지라는 생태적 공간”이라며 “공사 편의를 위해 공원화 도시 숲길을 훼손하는 발상은 도시에 대한 평가를 과거로 되돌리는 시대 발상”이라고 지적했다.

반면 광주시는 해당 도로의 구조적 문제 때문에 푸른길 공원의 일부를 지하철 2호선 공사구간에 포함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지하철 2호선이 지나는 길목 중 공사 예정인 백운광장 지하차도와 남광주 고가차도를 피해가야 하는데 푸른길 공원의 지하를 통과하는 방법이 최선이기 때문이다. 푸른길 지하를 피해 인근 주택 등으로 우회할 경우 주택 매입비 등 천문학적 예산이 추가돼 공사 자체가 어려워질 수도 있다.

광주시도시철도건설본부측은 다만 푸른길 구간에 대한 총 공사기간이 2~3년 정도

걸리는 만큼 현재 식재돼 있는 나무를 다른 곳으로 옮긴다 다시 식재하는 등 다양한 환경보존 대책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도시철도건설본부 관계자는 “지하철 2호선은 도로 가운데 지하로 철도가 지나도록 설계를 하고 있으나 대남로의 경우 불가피하게 푸른길과 일부 겹치는 구간이 있다”며 “예산을 절감하면서 푸른길의 훼손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찾아 기본설계에 반영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광주 지하철 2호선은 2015년까지 기본 및 실시설계를 마무리하고, 2016년 착공해 오는 2023년까지 3단계에 걸쳐 41.7km구간을 건설할 계획이다. 총 사업비는 국비 60%, 시비 60%로 1조7394억원이 투입되며 정거장 44곳, 차량기지 2곳이 건설된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박정렬기자 halo@kwangju.co.kr

## 윤장현, 31일 광주시장 출마 선언

윤장현 전 새정치연합 공동위원장이 오는 31일 광주시장 출마선언을 하고 6·4 지방선거를 향한 본격적인 행보를 시작한다.

윤 전 위원장의 출마선언에 따라 앞서 광주시장 출마선언을 한 강은태 광주시장과 이용섭 의원, 이병완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 등과 함께 새정치민주연합 경선이 ‘4파전’이 될 전망이다.

윤 전 위원장은 이날 오후 2시 광주 동구 금남로 3가 옛 한국은행 자리인 금남공원에서 광주시민들에게 광주시장 출마의 변을 밝히고, 주요 공약과 정책 등을 발표할 계획



이다.

평소 ‘광주정신’을 강조해 온 윤 전 위원장은 출마 선언 장소를 광주의 상징인 금남로로 선택하고, 이곳에서 새정치연합의 시작을 알리고 광주의 역할과 비전을 제시할 예정이다.

출마선언에 앞서 윤 전 위원장은 이날 오전 예비후보 등록을 마친 뒤 국립 5·18 민주묘지를 참배할 계획이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 통합진보당 선거체제 전환… 표심잡기 나서

오늘 광주시장 당원대회

광주시장 후보 등 37명 선출

통합진보당 광주시당이 광주에서 가장 먼저 후보 선출을 마무리하고 선거 체계로 전환, 표심잡기에 나선다.

27일 통합진보당 광주시당에 따르면 28일 오후 7시 김대중컨벤션센터 4층에서 ‘6·4 지방선거 후보 선출 및 선거 승리를 위한 당원대회’를 갖고 본격적인 선거운동 체계로 돌입한다. 이날 당원대회에는 당원 1500여명이 참석할 예정이라는 게 통합진보당의 설명이다.

이번에 선출되는 후보는 윤민호 광주시장 후보를 비롯한 ▲김미화 동구청장 후보

▲정영택 북구청장 후보 ▲박오열 관산구청장 후보 등 자치단체장 후보 3명이다. 또 광역의원 12명, 기초의원 21명 등 모두 37명이 이번 지방선거에 나선다.

통합진보당은 모든 선거구 출마를 목표로 오는 4월 중순까지 비례후보를 비롯한 나머지 선거구의 후보 선출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윤민호 광주시장 예비후보는 “가장 빠르게 선거체제에 돌입한 만큼 이번 선거에서 기초선거구 전원 당선과 시의회 교섭단체 구성, 진보 단체인 배출을 목표로 최선을 다해 될 것”이라며 “20년 독점정치를 바꾸고 아래에서부터 풀뿌리를 건강하게 심는 것이 바로 통합진보당의 역할”이라고 밝혔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지방선거 선전을 위하여

27일 새누리당 광주시당에서 황우여 대표와 광주지역 새누리당 지방선거 출마예정자들이 간담회를 마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나명주기자 mjna@kwangju.co.kr

## “광주시민들도 새누리 후보 손 잡아줄 것”

황우여 새누리당 대표 광주서 공천신청자 간담회

새누리당 황우여 대표는 27일 “국민의 뜻은 공천 자체가 나쁘다는 게 아니라 공천과정의 부정을 없애라는 것”이라고 밝혔다.

황 대표는 이날 새누리당 광주시당에서

6·4지방선거 공천신청자 등과 간담회를 갖고 이 같이 밝혔다.

그는 “새누리당이 대선 약속과는 달리 이번 지방선거 공천을 하는 것은 무공천에 따른 혼란을 줄이고, 공천권을 국민에게 돌려

주기 위한 것”이라며 “철저히 상향식 공천을 지향하며, 정치적 소수자를 배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무공천은 ‘주인이 물건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가게에 진열하는 행위’로 규정했다. 무공천에 따라 후보들이 난립하고, 이런 혼란은 고스란히 유권자들에게 돌아간다는

것이다.

광주·전남지역에서 새누리당 출신이 배출되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새누리)당이 잘 못 한 것”이라며 “호남에도 (새누리)당이 씨를 뿌려야 하며, 이를 통해 동서통합도 이뤄지고 광주시민도 손을 잡아 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는 유수석 최고위원과 이영재 광주시장후보, 구정장, 시의원, 구의원 후보자와 공천신청 예정자 등이 참여했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 전남도 기획조정실장 나승병

전남도는 27일 나승병(59·사진) 녹색성장 정책실장을 기획조정실장으로 승진발령하고 후속인사를 단행했다.

(명단 18명) 신태욱 지역계획과장이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 투자유치본부장으로 승진발령되고, 윤광수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 투자유치본부장이 녹색성장정책실장으로 자리를 옮겼다.

나 신임 기획조정실장은 함평 출신으로 학다리고 육군사관학교, 전남대 행정대학원을 졸업하고 지난 1984년 전남도 행정사무관으로 임용된 뒤 전남도 법무담당관, 공보관, 감사관,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 투자유치본부장 등을 역임했다.



## 서남수 교육장관 광주 방문

서남수 교육부 장관이 28일 광주를 방문한다.

서 장관은 이날 오전 광주시 북구 운암중과 운암초교를 방문해 자유학기제·돌봄교실 운영에 대해 교육계와 학생·학부모들의 의견을 듣는다. 또 오후에는 조선대에서 열리는 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 총회에 참석해 대학 구조조정 등에 대해 총장들과 대화의 시간을 갖는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인터넷에서 만나는 광주일보  
www.kwangju.co.kr

### 결산공고

매년 광주일보 신문을 통해 결산공고를 게재하는 기업체 임직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사는 2013년 12월 말 결산법인 결산공고를 접수합니다.

광주일보사 광고국    광고상담 문의: 전화 062.227-9600 팩스 062.227-9500

계정과목	금액	계정과목	금액
<b>I. 유 동 자 산</b>	<b>1,053,726,139</b>	<b>부 채</b>	<b>1,059,459,752</b>
(1) 당 좌 자 산	1,005,212,639	1. 매 입 채 무	54,063,871
1) 현금 및 현금성 자산	66,924,698	2. 단 기 차 입 금	580,000,000
2. 매 출 채 권	648,732,838	3. 미 지 급 금	326,798,359
대 손 총 당 금	(34,993,084)	4. 예 수 금	17,604,280
3) 단 기 대 여 금	192,059,786	5. 예 수 부 가 치 세	72,885,430
대 손 총 당 금	(1,871,644)	6. 미 지 급 비 용	7,075,422
4. 선 금 비 용	34,176,425	7. 미 지 급 인 세	1,032,390
5. 유 동성인연법인세자산	94,183,620	<b>II. 비 유 동 부 채</b>	<b>4,294,485,540</b>
6. 기 타 의 당 좌 자 산	6,000,000	1. 장 기 차 입 금	3,963,740,000
(2) 재 고 자 산	48,513,500	2. 퇴 직 금 이 출 당 부 채	331,236,040
1. 저 장 품	48,513,500	(국 민 연 금 전 환 금)	(490,500)
<b>II. 비 유 동 자 산</b>	<b>8,791,630,128</b>	<b>부 채 총 계</b>	<b>5,353,945,292</b>
(1) 유 형 자 산	8,545,691,491	<b>자 본</b>	<b>500,000,000</b>
1. 토 지	1,725,537,050	I. 자 본	500,000,000
2. 건 물	2,535,484,669	1. 보 통 주 자 본 금	500,000,000
(감 가 상 각 누 계 액)	(341,247,401)	<b>II. 자 본 잉 여 금</b>	<b>4,232,607,645</b>
3. 구 축 물	146,005,865	1. 주 식 발 행 초 과 금	4,232,607,645
(감 가 상 각 누 계 액)	(14,334,600)	<b>III. 결 산 손 금</b>	<b>(241,196,670)</b>
4. 기 타 장 치	5,341,134,187	1. 미 처 리 결 손 금	(241,196,670)
(감 가 상 각 누 계 액)	(1,165,621,556)	<b>자 본 총 계</b>	<b>4,491,410,975</b>
5. 차 량 운 반 구	486,611,225	<b>부 채 와 자 본 총 계</b>	<b>9,845,356,267</b>
(감 가 상 각 누 계 액)	(257,085,445)		
6. 공 구 기 구 비 품	176,880,910		
(감 가 상 각 누 계 액)	(87,673,213)		
(2) 타 비 유 동 자 산	245,938,637		
1. 장 기 금 융 상 품	1,686,000		
2. 비 유 동 인 연 법 인 세 자 산	231,252,637		
3. 보 증	13,000,000		
<b>자 산 총 계</b>	<b>9,845,356,267</b>		

계정과목	금액	계정과목	금액
<b>I. 유 동 자 산</b>	<b>1,980,190,181</b>	<b>부 채</b>	<b>4,621,529,025</b>
(1) 당 좌 자 산	1,980,190,181	1) 투 자 자 산	60,000,000
1) 현금 및 현금성 자산	384,181,309	1) 장 기 금 융 상 품	60,000,000
2) 매 출 채 권	275,398,697	(2) 유 형 자 산	4,091,279,025
대 손 총 당 금	(2,753,987)	1) 건 물	4,694,359,568
3) 단 기 대 여 금	1,270,000,000	(감 가 상 각 누 계 액)	(665,034,220)
4) 미 수 수 익	204,215,504	2) 기 계 상 각 누 계 액	481,473,530
대 손 총 당 금	32,802,213	감 가 상 각 누 계 액	(480,090,078)
5) 미 수 수 익	384,820	3) 공 구 기 구 비 품	200,000,000
6) 선 금 비 용	20,561,949	감 가 상 각 누 계 액	(19,999,000)
7) 미 수 법 인 세 환 금 액	60,000,000	4) 비 유 동 부 채	21,019,500
<b>II. 비 유 동 자 산</b>	<b>4,621,529,025</b>	감 가 상 각 누 계 액	(20,450,275)
(1) 투 자 자 산	60,000,000	1. 장 기 차 입 금	530,000,000
1) 장 기 금 융 상 품	60,000,000	(2) 타 비 유 동 자 산	250,000
(2) 유 형 자 산	4,694,359,568	1) 보 증	250,000
(감 가 상 각 누 계 액)	(665,034,220)	<b>자 산 총 계</b>	<b>6,601,719,206</b>
2) 기 계 상 각 누 계 액	481,473,530	<b>부 채</b>	<b>5,198,711,930</b>
감 가 상 각 누 계 액	(480,090,078)	1) 유 동 부 채	3,275,700,000
3) 공 구 기 구 비 품	200,000,000	1) 단 기 차 입 금	291,351,400
감 가 상 각 누 계 액	(19,999,000)	2) 유 동 부 채	-
4) 비 유 동 부 채	21,019,500	3) 예 수	-
감 가 상 각 누 계 액	(20,450,275)	4) 미 지 급 비 용	1,586,106,670
1. 장 기 차 입 금	530,000,000	5) 미 지 급 법 인 세	42,343,860
(2) 타 비 유 동 자 산	250,000	6) 임 대 보 증 금	3,210,000
1) 보 증	250,000	<b>II. 비 유 동 부 채</b>	<b>1,346,829,025</b>
<b>자 본 총 계</b>	<b>6,601,719,206</b>	<b>부 채 총 계</b>	<b>5,198,711,930</b>
<b>I. 자 본</b>	<b>924,000,000</b>	<b>자 본</b>	<b>924,000,000</b>
<b>II. 잉 여 금</b>	<b>479,007,276</b>	<b>I. 자 본</b>	<b>924,000,000</b>
1) 미 처 분 잉 여 금	479,007,276	1) 보 통 주 자 본 금	924,000,000
<b>자 본 총 계</b>	<b>1,403,007,276</b>	<b>II. 잉 여 금</b>	<b>-</b>
<b>부 채 와 자 본 총 계</b>	<b>6,601,719,206</b>	<b>부 채 와 자 본 총 계</b>	<b>6,601,719,206</b>

계정과목	금액	계정과목	금액
<b>I. 유 동 자 산</b>	<b>537,976,604</b>	<b>부 채</b>	<b>5,579,096,903</b>
(1) 당 좌 자 산	537,976,604	1) 유 동 부 채	3,796,750,000
1) 현금 및 현금성 자산	64,821,298	1) 단 기 차 입 금	3,796,750,000
2) 매 출 채 권	239,860,135	2) 유 동 부 채	155,988,504
대 손 총 당 금	(2,316,230)	3) 예 수	41,398,069
3) 단 기 대 여 금	204,215,504	4) 미 수 수 익	250,412
4) 미 수 수 익	168,010	5) 선 금 비 용	1,285,813
5) 미 수 수 익	31,179,087	6) 선 금 비 용	8,023,935
6) 선 금 비 용	384,820	7) 선 금 비 용	1,085,571,170
7) 미 수 법 인 세 환 금 액	7,639,146,618	<b>II. 비 유 동 부 채</b>	<b>1,934,117,446</b>
<b>II. 비 유 동 자 산</b>	<b>-</b>	1) 장 기 차 입 금	853,727,000
(1) 투 자 자 산	-	2) 장 기 차 입 금	1,078,090,446
1) 장 기 금 융 상 품	7,639,146,618	3) 수 입 보 증 금	2,300,000
(2) 유 형 자 산	8,006,153,579	<b>부 채 총 계</b>	<b>7,513,214,349</b>
(감 가 상 각 누 계 액)	(950,646,989)	<b>자 본</b>	<b>1,000,440,000</b>
2) 기 계 상 각 누 계 액	527,979,855	<b>I. 자 본</b>	<b>1,000,440,000</b>
감 가 상 각 누 계 액	(4,339,847)	1) 보 증	336,531,127
<b>자 산 총 계</b>	<b>8,177,123,222</b>	<b>II. 잉 여 금</b>	<b>-</b>
<b>부 채</b>	<b>5,579,096,903</b>	1) 미 처 리 결 손 금	336,531,127
1) 유 동 부 채	3,796,750,000	<b>자 본 총 계</b>	<b>663,908,875</b>
1) 단 기 차 입 금	3,796,750,000	<b>부 채 와 자 본 총 계</b>	<b>8,177,123,222</b>
2) 유 동 부 채	155,988,504		
3) 예 수	41,398,069		
4) 미 수 수 익	250,412		
5) 선 금 비 용	1,285,813		
6) 선 금 비 용	8,023,935		
7) 선 금 비 용	1,085,571,170		
<b>II. 비 유 동 부 채</b>	<b>1,934,117,446</b>		
1) 장 기 차 입 금	853,727,000		
2) 장 기 차 입 금	1,078,090,446		
3) 수 입 보 증 금	2,300,000		
<b>부 채 총 계</b>	<b>7,513,214,349</b>		
<b>자 본</b>	<b>1,000,440,000</b>		
<b>I. 자 본</b>	<b>1,000,440,000</b>		
1) 보 증	336,531,127		
2) 미 처 리 결 손 금	336,531,127		
<b>자 본 총 계</b>	<b>663,908,875</b>		
<b>부 채 와 자 본 총 계</b>	<b>8,177,123,222</b>		

계정과목	금액	계정과목	금액
<b>I. 유 동 자 산</b>	<b>955,140,605,364</b>	<b>I. 유 동 부 채</b>	<b>1,340,030,426,968</b>
1. 현금 및 현금성 자산	282,902,490,631	1. 매 입 채 무	479,920,441,445
2. 단 기 금 융 상 품	6,532,458,848	2. 선 수 금	72,965,480,646
3. 장기손익인식금융자산	0	3. 미 지 급 금	86,228,188,421
4. 단기매도가능금융자산	2,030,350,000	4. 미 지 급 비 용	7,604,081,418
5. 매 출 채 권	422,961,519,105	5. 예 수 금	168,204,408,609
6. 단기대여금및기타채권	143,539,507,		